



우석대,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 준우승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경북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9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상주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 남대부 2부에 출전한 우석대는 예선에서 3전 3승으로 조 1위로 준결승에 올라 동원대학교를 82:78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울산대와의 결승에서 우석대학교 신기범·신기현(이상 체육학과 1년) 형제가 43점을 합작했지만 어렵게 준우승에 그쳤다.

이병영 감독은 "대학 본부와 이병섭 전라북도농구협회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에서 신기범 선수가 우수선수상과 득점상을 수상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장은성 기자



무주경찰, '사건문의·사적접촉 No!No! 캠페인'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17일 무주경찰서 앞에서 '사건문의·사적접촉없는 No! No!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년도 전국 경찰관 직무만족도 1위를 달성한 무주경찰서는 이 캠페인을 통하여 모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경찰관서의 사건담당자, 부서장 및 관서장에게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과 수사 및 단속부서의 사건담당자(팀·계장 등) 및 부·관서장은 사건관계인(사건당사자변호인·이해관계인)과 사적접촉 행위 일체금지된다는 제도를 무주경찰서 직원들에게 홍보하였다.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사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더욱 자각하여 항상 군민을 위해 뛰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임실군, 보건의료원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실시

임실군이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 종사자 200여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IGRA)을 실시했다.

보건의료원은 7월초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검진대상을 선정했으며, 검사결과 잠복결핵 양성자는 개별 상담을 통해 예방적 치료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미 치료자는 추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지만 증상을 하지 않아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결핵과 관련된 증상이 없고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전염성은 없지만 고령 또는 면역력이 현저히 감소했을 때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발생 시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전파될 위험성이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잠복결핵 양성자로 진단될 경우 예방 화학적 치료를 권고하고 있으며 치료 시 결핵발병률 60~90% 까지 예방할 수 있어 잠복결핵검진이 중요하다.

김대군 보건의료원장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통해 신속한 감염자 발견 및 치료를 실시하고 종사자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핵검진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 학교, 돌봄시설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 중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미 실시자는 검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힐링콘서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50여명 참여... 각계 관심과 격려 전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박신에 단장)은 지난 1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함께하는 힐링콘서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가족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오봉 총장과 김광영 도지사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동권리 보장원 정이중 원장도 축하 영상으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전했다.

또한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전라북도의회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박용근 도의원, 송승용 도의원, 윤수봉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김원주 시의원, 한승우 시의원 등이 참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개별장학회 이영섭 이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힐링콘서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기념품을 후원했다. 이날 공연에는 인디뮤지션인 고나맨즈가 출연해 친근하고 흥겨운 음악을 통해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여한 현장교사 40명은 사업 참여 아동과 함께 만든 '서프라이즈 영상'으로 종사자들에게 박수와 기쁨을 선물했다.

박신에 단장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아동복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전라북



도 287개소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을 비롯한 모든 종사자분들이 오늘날만큼은 정말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연에 함께 한 1318해피존행복스캐치 지역아동센터 체험주 시설장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난다"며 "이렇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해 준 박신에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의회 오동환·이숙자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남원시의회 오동환 의원과 이숙자 의원이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도내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시정경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오동환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서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숙자 의원은 꼼꼼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절차 및 처리에 제동을 걸었고, 공유재산 사용수익자가 관리 철저, 영리법인의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 개선 촉구,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 등을 5번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한편 수상 소감에서 오 의원과 이 의원은 "앞으로도 남원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대 정창규 교수, 미국재료학회 학술대회 조직위원 선정

전북대학교 전자재료공학전공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가 2024 미국재료학회(MRS) 학술대회의 조직위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MRS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저명한 재료공학 분야 학회다. 기계, 전자, 화학, 물리 등 다른 공학 분야나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자들도 많이 참여하는 규모가 큰 학술대회를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

정 교수는 2024년 에너지 하베스팅 분야 관련 심포지움의 조직위원으로 선정됐다.

내년 4월 22~26일 중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MRS Spring Meeting에 참여한다. 또 5월 7~9일 사이에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MRS 학술대회에서도 몇 차례 초청강연자로 참석했으나 MRS에서 조직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Jinto Bai 교수(국립과학연구소(CNRS), 프랑스), David Hallinan 교수(플로리다주립대학교, 미국), Andris Sutka 교수(리가기술대학교, 라트비아) 등의 조직위원들과 함께 내년 학술대회가 개최될 때까지 여러 초청 강연자들을 선정하고, 발표자들의 발표내용 및 스케줄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에서 개최되던 MRS가 내년에는 최초로 시애틀에서 열리는데, 새롭게 시작되는 MRS 시애틀 시대에 일조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시 검산동,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상담 추진

김제시 검산동(동장 송영애)에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최근 검산동으로 전입하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져 심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아 집안 곳곳에 있는 모서리에 몸을 부딪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이에 송영애 검산동장은 검산동 복지기동대(대장 최춘열)와 함께 방문하여 고충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집안 곳곳에 있는 모서리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콘센트 화재예방을 위해 자동화폐지를 부착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기동대 최춘열 대장은 "거동이 힘든 분들에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작은 부분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손



길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검산동 행정복지센터 송영애 동장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대, 핀테크 캠프 성료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0~13일 3차 4일간의 서울 여의도에서 핀테크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핀테크 캠프에는 금융·투자분석 서비스 분야로의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지역 청년 28명이 참여했다. 한국거래소 탐방을 시작으로 금융 산업과 직무특강, 파이썬을 활용한 금융 데이터분석 등 4차 산업의 핵심인 프로그래밍 핀테크 분야로의 연계 시스템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해 보는 등 개발의 기초과정을 참여해 봄으로써, 핀테크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주대 이상훈 대학원지리플라스센터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특화 프로그램 설계·운영을 통해 전북지역 금융산업 자원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촌진흥청장 팜위케이션 진행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 남원시4-H연합회 안효성 회장 농원에서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장과 중앙4-H위원, 전북 4-H위원들이 함께하는 팜 위케이션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케이션은 일을 뜻하는 Work와 휴가를 뜻하는 Vacation의 합성어로 일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이날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4-H위원과 간담회 업무와 팜파티 휴가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의견 청취했다.

남원4-H연합회 안효성 회장은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에 정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될 수 있게 많은 지원을 부탁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일윤 임실군의회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임실군의회 정일윤 부의장이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일윤 부의장은 초선 의원임에도 제9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며 오랜 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5번 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의 민생을 챙기고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으며, 임실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주민 생활 정치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정일윤 부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임실군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원, 지역발전공로대상 수상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는 지난 14일 동창옥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역발전공로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를 빛낸 대한민국 총회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 등이 주관한 이번 대상상은 평소 각 분야별 확고한 산념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의원은 과거 농촌지도사 근무경험을 토대로 온실가스 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앞장서 활동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창옥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농업에 미치는 상황을 지켜보며, 올해 '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또한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민 생활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동창옥 의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지역발전공로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유태만 기자



부안군 가족센터, 위기가족예방지원 가족캠프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희순)는 지난 15일과 16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일대에서 위기가족예방지원 '우리가족 온도 UP!' 가족캠프를 갖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가족캠프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등 역사문화 탐방과 함께 가족 간 화합 도모를 위한 가족감다상담을 실시했다. 가족 간 진솔한 대화로 관계 개선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참여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다양한 역사와 함께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고 가족과 함께 1박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